

교수님의 갑질, “이제 그만!”



Contents

1. 개인비서 유형	05
2. Payback 유형	07
3. 열정페이 유형	09
4. 하대(下待) 유형	11
5. Mentor(교수)에게 요구되는 자세	12
6. Mentee(학생)에게 요구되는 자세	13

교수님의 갑질, 이제 그만!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사회 여러 분야에서 알면서도 모른척했던 불편한 진실들에 대한 고발, 고백이 쏟아져 나왔다. 직장 관계 또는 고객과 종업원 사이의 '갑질'이라는 신조어는 이미 새롭지도 않은 단어이지만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그간 숨죽였던 '을(乙)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언론 기사에는 '갑질'이라는 단어가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갑질로 질타를 받는 재벌 기업이나 정관계 고위층들의 고개숙인 사진 또는 갑질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무너진 인권에 대한 고발 기사는 기업, 학교 등 분야를 한정짓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이슈 직장 갑질 폭력

“교수 갑질 견디다 못해 대학원 떠납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1,133



입력 : 2019.01.08 21:24

교수들 성폭력·노동착취 등 제보 '대학원생 119' 출범
'전통' 돼버린 연구비 갈취...자녀 과제·봉사활동까지 시켜



지난달 성균관대 대학원생 7씨는 교수연구원의 꿈을 버리고 대학원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지도교수의 '갑질' 때문이다. 이 교수는 선임연구원을 '방장'으로 임명해 연구원과 대학원생의 통장을 관리하게 했다. 이후 학교에서 이 통장으로 지급한 연구비 중 일정 금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시키도록 했다. 한 대학원생은 5년 동안 8000만원을 빼앗겼다. 또 다른 대학원생도 300여만원을 교수 통장에 입금했다. 교수는 대학원생들에게 현금으로 돈을 찾아 자신의 통장에 입금시키라고 지시해 증거를 없앴다. 이 교수에게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 10명이 모두 '연구비 갈취'를 당했다.

이 중 4명이 교수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 대학원을 그만뒀다. 이 교수는 이들의 대학원 선배를 통해 통장에 남은 연구비를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082124025&code=94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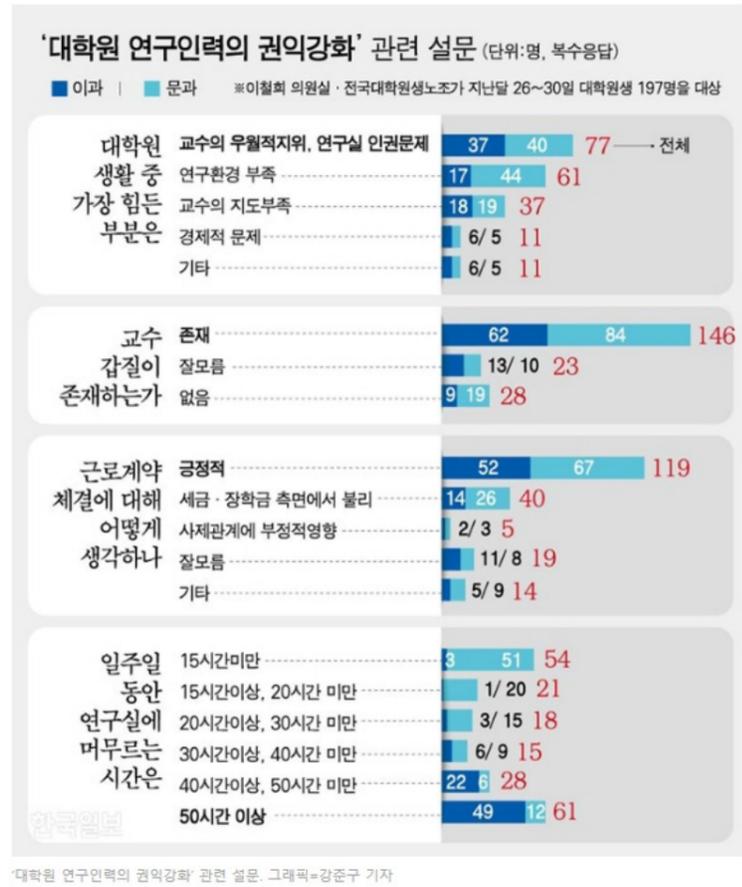
요즘 분야를 막론하고 등장하는 “갑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위키백과에서는 “갑질(甲~)은 계약 권리상 쌍방을 뜻하는 갑을(甲乙)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에, 특정 행동을 폄하해 일컫는 ‘~질’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부정적인 어감이 강조된 신조어로 2013년 이후 대한민국 인터넷에 등장한 신조어”로 정의하고 있다(위키피디아, “갑질”). 본래 상업적 계약관계 상의 ‘갑’과 ‘을’에서 대개 ‘갑’이 원청업자, ‘을’이 하청업자를 가리키는 데에서 유래된 갑질은, 이제는 사회 전반에서 권력, 지위, 재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구는 행동으로 언어적, 정신적, 육체적인 폭력으로 표현된다.

갑질의 유형에는 2014년 여객기의 회항 사건, 모 기업 회장의 운전기사 폭행사건 등 기업의 대표자 혹은 경영진 일가의 사람들이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오너형 갑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상품 강매를 한다거나 무리한 납품을 강요하는 밀어내기 갑질, 기업 내에서 견습생 또는 계약직 직원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무리한 근무시간을 강요하는 열정페이형 갑질 등으로 나뉘고 있다고 위키백과는 정리하고 있다.

이처럼 ‘갑질’은 본래 상업적인 계약관계에서 흔히 등장할 법 하지만, 이제는 지성의 요람인 대학에서도 흔히 등장하는 단어가 되어버렸다. 대학에서 나타나는 갑질의 유형은 대부분 교수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도 대학원생 등 학생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대학원에서 벌어지는 교수들의 갑질 실태를 보도한 한 언론에 따르면, 대학원생 중 74%가 “연구생활 중 교수의 갑질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한국일보 2018년 10월 18일). 기사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실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2018년 9월에 실시한 “대학원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관련 설문”(197명 참여) 결과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 내용에는 대학원 석·박사과정생 및 박사후 과정생 등 연구원 중 응답자 39%(77명)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로 교수의 우월적 지위와 인권문제라고 나타났고, 연구생활 중 교수의 갑질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4%(146명)가 ‘갑질이 존재한다’고 답변했으며, 교수 갑질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열정페이를 강요한다’는 응답이 19.6%(95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격무시·강압 17.3%(84명), 일과 삶의 조화 무시 17.1%(83명), 무관심·방임 15.9%(77명), 개인업무·잡무 요구 15.5%(75명), 연구윤리 위반 8.9%(43명) 순으로 지적됐다고 보도하였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는 예로부터 스승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왔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스승으로부터 제자를 향한 자애(慈愛)와 제자로부터 스승을 향하는 존경심이 대칭 관계를 이루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어디서부터의 잘못된지 대한민국에서 스승은 더 이상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고, 학생도 더 이상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모습이 심해지고 있다.

물론 학계의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 교수들의 '갑질'을 당연한 관행처럼 여기고 참고 지냈던 대학원생들의 폭로가 이어지자, 마치 대부분의 교수들이 갑질을 하고 역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는 입장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실 일부 교수들의 일그러진 모습일 뿐이다. 그러나 갑질이라는 행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불평등에 있다.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거 없는 불평등은 비록 일부의 일이라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으로 바꾸어가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호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언론 기사에 나타나고 있는 교수 갑질의 유형을 성찰하고, 이를 통해 그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점에 대하여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여러 언론 기사에 나타난 교수 갑질의 유형은 다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개인비서 유형

개인비서 유형이란 학생들에게 학업이나 대학 관련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유형을 말한다. 2019년 1월 전국대학원생노조가 조직한 '대학원생 119'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수 갑질 사례를 폭로하였다. 공개된 내용에는 대학원생들에게 연구비 통장을 관리하게 한 뒤 적립된 연구비를 교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그림일기 등 교수 자녀의 숙제를 대학원생들에게 대신 하도록 한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Home > 뉴스 > 사회

시민단체 대학원생 교수갑질 사례 발표 "내 아이 그림일기 대신 써라"

윤수환 | 기사입력 2019-01-08 17:32 | 최종수정 2019-01-08 19:50

교수갑질, 대학원생119, 직장갑질, 대학교수, 대학원

대학원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전국대학원생노조가 결성한 '대학원생119'가 대학원 교수들의 다양한 갑질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는 대학원생들에게 연구비 통장을 관리하게 한 뒤 쌓인 연구비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그림일기 등 자녀의 숙제를 대학원생들에게 대신 하도록 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출처: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105234_24698.html

"대학원생에 자녀 입시 도와라"...교육부, '갑질' 교수 특별조사

이경선 | 기사입력 2019-02-18 14:41 | 최종수정 2019-02-18 14:42

대학교수갑질, 대학원, 갑질, 교육부

대학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자녀 대학입시를 돕도록 지시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가 최근 특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유엔해 장관 주제로 열린 제3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서 대학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에게 실험과 논문 등 자녀 입시 준비를 지시했다는 비리 제보와 관련해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교육부는 제보 접수 뒤 조사관 4명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벌였고, 추가 보강조사를 거쳐 이달 말 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출처: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169441_24698.html

2019년 2월에는 대학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자녀 대학입시를 돕도록 지시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교육부가 최근 특별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오래 전에도 대학원생이 교수 자녀의 숙제를 돕거나 등·하원을 도왔다는 이야기는 종종 오르는 에피소드이며 대학원생들끼리 하는 뒷이야기에는 교수님의 술자리가 끝나면 운전으로 모셔다드리는 대리운전을 늘 했다는 토로, 교수님 집안의 대소사 행사에도 동원되었다는 등등으로 대학원생이 학업이나 연구 업무와는 상관없는 교수의 사적인 일에 동원된다는 이야기는 드물지 않게 기사 한 곳을 장식하는 흔한 유형의 사례들이다. 대학원생들은 대학원 입학원서가 사실은 노비 계약서였다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하곤 한다.

교수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의 영역을 분명히 하지 않고 학생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 경계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도 있거니와 학위논문 통과, 졸업, 취직 등에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교수에게 대학원생이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 처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는다면 정중히 거절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옳다. 때로는 같은 과의 다른 교수나, 학내 인권위원회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조언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원생 119’는 2019년 1월 N사 밴드 모음으로 개설되었다. 직장 내 갑질을 제보 받아 상담을 제공하는 ‘직장갑질 119’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출범시킨 대학원생 인권침해 제보 및 상담 서비스다. 대학원은 ‘직장’이 아니라는 편견 때문에 3만명에 이르는 전국 대학원생이 갑질의 사각지대에 놓여 목소리를 낼 창구가 없다는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전하는데 개설 1개월만인 2월 기준으로 가입회원이 200명을 넘었다니 그간 도움을 청하거나 의논할 곳이 없었던 대학원생들의 어려운 현실을 느낄 수 있다(<https://graduunion.or.kr/2019/12/13>).

2. Payback 유형

payback 유형이란 대학원생을 연구 프로젝트에 연구원으로 등록시켜 놓고 그 연구원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를 다시 교수에게 건네는 방식을 말한다. 인건비 payback을 통해 만들어진 불법적인 자금은 교수의 사적 용도로 유용되고 학생들은 자기가 바친 시간과 노력의 대가로는 훨씬 적은 비용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노동력 또는 임금 착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채 명의만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원이 허위로 등록하여 연구비를 지급받는 것은 공금횡령, 사기 등의 혐의에도 해당할 수 있다.

분명히 불법적인 방법이지만, 때로는 약간의 ‘미담’ 성격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운영하는 교수 중에는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연구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대학원생의 생활비나 등록금을 보조하고,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공동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해당 교수는 현행 제도상 연



출처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32044322988>



출처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12331074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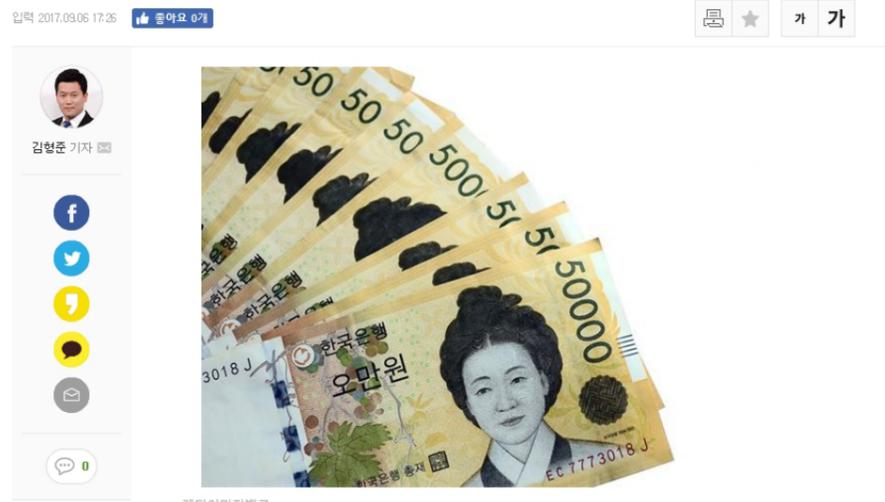
구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대학원생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저지른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학원의 연구비 공동 사용 문제는 오래 전부터 풀리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속시원히 수술대에 올려 치료할 수도 없는 불편한 주제이기도 하다. 연구비 공동 관리의 개념은 연구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오히려 연구원을 평등하게 대우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관행적으로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태를 “연구비 착복한 것도 아닌데... 교수들도 할말 많다”라는 기사에서 개인적인 착복 없이 연구실을 위하여 운영했으나 불법적 운영을 지탄받아야 했던 교수들의 억울한 사연을 보도하기도 하였다(한국일보의 2018년 10월 18일), 그러나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명백한 불법을 덮을 수는 없다.

반면 또 다른 기사(상아탑 횡령의 온상 '연구비 관리..')에서는 10년간 인간비 상납에 지친 대학원생이 2억 원이 든 통장을 가지고 잠적한 사건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연구지원기관에서 지원받는 연구비로 학생들의 인간비를 지급하고 장학금으로 활용하는 현행 구조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연구주제가 아닌, 지원기관에서 발주한 다른 주제를 연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작 자신의 개인 연구시간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소개할 '열정페이 유형'의 갑질이 발생하기 쉬우며 대학원생들의 연구실 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커질 수 있다.

조교들 이름 빌려 연구비 10억원 가로챈 교수 집행유예



게티이미지뱅크

제자들을 보조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10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연구비를 챙긴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교수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2006년부터 8년 3개월 동안 정부기관 용역을 수행 하면서 제자 20여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약 10억원의 인간비 등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 소된 윤모(49)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교수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과 직접 계약해 학교당 국 감사를 피할 수 있었다. 제자들은 학점평가 등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9061774460437>

3. 열정페이 유형

'열정페이 유형'이란 개인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연구실 생활, 개인의 연구 분야와 관련 없는 연구 또는 업무에 대한 강요 등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대학원 연구 인력의 권익강화” 관련 설문내용 중 대학원생이 일주일간 연구실에 머무는 시간을 조사한 항목에서 이공계열 학생은 49명이 50시간 이상 머문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인문계열 학생이 12명으로 응답한 것에 비하여 훨씬 많은 숫자이다. 일반적인 이공계 대학원생의 하루 일과를 보면 아침 9시 이전에 연구실에 나와 교수님의 수업준비를 돕는다. 시험이나 과제물의 채점이 있을 때는 며칠이 걸릴 때도 있다. 자신의 수업을 듣고 프로젝트 업무에 수반되는 여러 행정 처리를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회사원이 퇴근하는 6시가 금방 된다. 저녁을 먹고 나서야 개인의 과제나 연구를 할 수 있다. 늘 대중교통이 끊어지기 직전에야 서둘러서 연구실을 나올 수 있다. 하루에 연구실에 머무는 시간은 적어도 14시간이고 밀린 연구와 과제, 실험 일정 등의 이유로 공휴일, 연휴도 직장인만큼 쉬기 어려운 실정이나 어렵잡아도 주당 50시간은 훨씬 넘는 경우가 많다. 전국의 많은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들은 대략 이와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원생들의 불만도는 높아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해야 한다면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교수들은 “우리가 공부했던 시절보다 얼마나 좋은 환경인데... 열의가 없다”, “학생들의 연구태도가 예전만 못하다” 등의 불만을 토로한다. 물론 21세기인 현재에는 대한민국의 물리적인 성장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던 70-80년대에 비하면 소위 말하는 ‘헝그리 정신’도 찾아볼 수 없고, 일자리와 돈에 대한 절실함도 그때만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한 만큼,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도 변했고 요즘 젊은이들이 느끼는 절실함의 유형도 변했음을 교수들이 이해해주고,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원하는 바를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인생 선배’이며 연구실의 ‘멘토’(mentor)인 교수들에게 먼저 필요할 것이다.

미국 ORI에서는 “Communicating Expectations to Your Lab Group”라는 제목의 글로써 건강한 연구실 문화 조성을 제안하였다. 내용은 지도교수 입장에서의 연구실 생활에 관한 기대치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기대치의 간극을 소통을 통하여 좁히고 확인하라는 내용이다. 이 글에서는 교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항목을 자문해보기를 권하고 있다. 본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RE 홈페이지 > 책임있는 연구 > 연구공동체”에서 번역본을 참고할 수 있다.

-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 내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합당한가?
- 나의 기대치에 대하여 얼마나 명확히 학생들과 소통하였나?
- 나의 기대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에 귀 기울였는가?
- 나의 기대치가 같은 학과 내 다른 멘토들의 기대치와 일맥상통하는가?
- 나는 학생들이 일주일에 40-60시간을 연구실에서 보내길 원하는가, 아니면 100시간을 보내길 원하는가?
- 나는 학생들이 업무시간 동안 완전히 방해받지 않고 일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쉬어가며 일하기를 원하는가?

출처 : <https://ori.hhs.gov/blog/communicating-expectations-your-lab-group>, 2019년 1월 25일 검색.

청년, 복종을 배우다...'교수 갑질', '체육계 미투' 만연

대학경제 | 권현수 임흥조 기자

2019.01.16 14:44



대학원생 상대 설문조사결과 74%가 '갑질이 존재한다', 체육계 순종을 넘어 범죄로 치달다

가르침을 명목으로 스승이 제자에게 '순종'할 것을 강요하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체육계 미투가 뜨거운 감자다. 다수의 청년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지만, 마음 한켠에 상처가 자리 잡는다.

Google에 의해 종료된 광고입니다.

◆사제시간 아닌 개인비서로 전락...도 넘는 교수 갑질, "졸업 위해 참을 수밖에 없어요"

D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모(33)씨는 대학원생 시절의 기억을 회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오전 9시 학교 연구실에 도착하면 수업을 듣거나 맡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교수가 시키는 온갖 허드렛일의 병행이 다반사였다. 오후 6시면 교수는 퇴근, 그때부터 강 씨는 공부와 논문 쓰기 등 제 일을 할 수 있었다. 오전 9시 출근과 오후 10시 퇴근은 기본이고, 실험과제가 있으면 밤샘이 늘상이었다.

강 씨는 "대다수 대학원생이 받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생각보다 심하다. 등록금과 졸업논문 등을 명목으로 제자에게 우회적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교수도 많다"며 "지도교수 평가에 따라 논문과 졸업 합격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에 교수에게 복종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잡무와 의견을 당연시하고, 사적인 업무까지 챙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1611557415558>



4. 하대(下待) 유형

막말과 폭행 등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하대(下待)를 알삼는 유형을 말한다.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막말과 폭행 관련 사건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때로는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범죄행위도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인술린 펌프회사의 사장이기도 한 최OO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군인 훈련소에서나 불법한 '목봉체조'를 시킨 기사가 화제가 되었는데, 제주대학교 병원의 한 교수가 진료 도중에 다른 직원들에게 막말과 폭행을 하는 동영상이 퍼져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런 갑질 유형의 저변에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깔려 있다. 제주대 병원의 경우 하대를 당한 직원들은 처음에는 참고 있었으나 병원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가 불거졌다. 근거 없는 불평등에 대하여 고발하는 것이 큰 용기가 필요한 어려운 일일 수 있으나 길게 생각하면 나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보다 평등을 구현하는 사회로 가는 디딤돌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적인 피해자를 예방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을'들의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TV CHOSUN

PICK

직원 밟고 때리고..제주대병원 교수 갑질 동영상 '파장'

기사입력 2018-11-27 21:18 | 기사원문 | 스크랩 | 본문듣기 · 설정

152 108

가



[앵커]

제주대병원에서 의사가 치료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환자를 치료중인 직원을 꼬집고, 때리고, 발을 마구 밟았습니다. 노조는 이 의사가 갑질을 일삼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출처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7/2018112790156.html

대한민국 학계에서 대학원생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다가 입학하더라도 대부분 20대-30대 초반의 나이로 아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게 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고 바라보는 목표가 있으나 미래에 대한 확신 부족과 불안감으로 내적 갈등을 겪는 대학원생이 적지 않다. 또한 대학원생은 연구비에 의한 인건비 지원이나 장학금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불안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지도교수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학생들은 지도교수에게 의존도가 높아지고 따라서 교수의 생각과 다른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교수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 전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학원생들이 처한 약자로서의 상황을 개선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윤리정보센터(CRE) 홈페이지에 “지도교수와 학생”(Good Mentorship)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국립과학원, 공학원 및 의학원에서 발행한 『조언자, 선생, 역할 모델, 친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멘토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번역 및 가공한 자료가 있다. 올바른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서의 핵심은 대화, 소통이라 할 수 있으며 학생은 지도교수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표현하고 교수와 더불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출처: “CRE 홈페이지 > 연구윤리주제 > 연구 공동체 > 지도교수와 학생(Good Mentorship)”)
http://www.cre.or.kr/board/?board=laboratory_articles

“지도교수와 학생”(Good Mentorship) 자료에 의하면 올바른 멘토와 멘티의 자세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라고 말하고 있다.

▶ **Mentor(교수)에게 요구되는 자세**

- ❶ 멘토는 학문 연구 수행의 스타일과 방법을 보여주고 가르친다.
- ❷ 멘토는 학문 연구를 평가하고 비판한다.
- ❸ 멘토는 멘티를 학문 사회로 연결시켜 준다.
- ❹ 멘토는 학생의 경력(career) 개발을 돕는다.
- ❺ 멘토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의무를 수행한다.
- ❻ 멘티는 멘토가 힘을 악용할 경우 희생양이 된다.
 - 힘의 악용은 교수로부터의 강요 또는 무관심 둘 중 하나로 나타날 수 있다. 학생이 이러한 문제를 겪어나 인지했을 때에는 멘토와 직접 대면하여야 한다. 대화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해결을 미루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 ❼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
- ❽ 멘토와 멘티 사이에는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 교수도 학생의 연구업적에 신뢰를 부여할 줄 알아야 한다.
 - 자유롭게 진지한 대화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바탕 하에서 가능하다. 멘토는 항상 학생에게 비판적이고 요구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데, 학생 개인에 대한 온정어린 배려와 또 연구에 대한 정열이 동반되었을 때, 학생은 이를 불쾌감과 협박의 표시가 아닌 진정 도움이 되고자 하는 비판과 지도로 인지하게 된다. 이를 위해 또한 필수적인 것은 학생들의 업적에 대한 정확한 업적인정(credit)의 배정과 칭찬이다.

▶ **Mentee(학생)에게 요구되는 자세**

- ❶ 지도교수가 자신의 학문적 역량을 키워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지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
 - 교수를 찾아서 실험결과를 논의하는 일이 잦을수록 좋다.
- ❷ 독자적인 연구수행능력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지도와 함께, 학생 자신의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 필요함을 인식할 것
- ❸ 실험실 또는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
- ❹ 멘토와 실험실 동료들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연구수행능력의 증대를 도모할 것
- ❺ 멘토로부터 연구에 대한 제안(연구 프로젝트)을 받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그보다 더욱 발전한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이해하고 고민할 것
- ❻ 성과 배분에 대해서는 사전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할 것
 - 논문에 등재되는 저자의 순서 등 연구성과의 배분에 대한 갈등과 고민은 초기에 해소되도록 한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교수와 동료들에 대한 갈등은 점차 커질 수 있다.
- ❼ 멘토의 지도를 수용하되 항상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판단 할 것
- ❽ 멘토로부터 힘의 악용을 겪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학생은 멘토에 직접 대면하거나, 주변에 존경받는 사람(학과장 등)을 찾아 상담하도록 한다.
 -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때때로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원문출처] 이인재 외(2011), “연구윤리 이해와 실천”, 한국연구재단, pp.186-191.

‘열린 연단’의 「문학 안과 밖」 에세이 중 「갑질 끝나지 않은 신분제 사회의 유습」에서는 한국사회가 아직도 봉건시대의 유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신분 사회의 모순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는 아직 ‘봉건적 근대 + 신분제적 민주사회’라는 모순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 시대의 ‘갑질’행태가 바로 그 증명한 셈이다. ‘신분 사회’에서 강자의 ‘갑질’을 막기 위한 윤리적인 제언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도 베풀지 말라”라는 논어의 구절과 함께, 대학(大學)에 나오는 ‘혈구지도(絜矩之道)’가 현재의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처방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윗사람에게서 느꼈던 싫어하는 바로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고, 아랫사람에게서 느꼈던 싫어하는 바로 윗사람을 섬기지 말며, 앞 사람에게 느꼈던 싫어하는 바로 뒷사람을 이끌지 말고... (중략) 왼쪽 사람에게 느꼈던 싫어하는 바를 오른쪽 사람과 교유하지 않는 일, 이를 일컬어 ‘혈구지도’라는 것이다.”

출처: 이승환, “갑질 끝나지 않은 신분제 사회의 유습”, <https://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97953&rid=253>

옛부터 내려오는 격언 중 하나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임금님과 스승님과 아버지는 한 몸과 같다"라는 말이 있다.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았으나 그 생명을 보다 온전하고 바르게 키우는 것은 스승의 은혜이므로 임금과 스승과 부모를 동급으로 존경하라는 뜻의 격언이다. 최근 중·고등학교는 이런 격언들은 케케묵은 옛말로 치부될 정도로 교권의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으나 대학에서는 아직 교수에 대한 존경심 어려움 등이 남아있다. 많은 대학원생들이 교수를 따라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고 있고, 교수의 가르침으로부터 학문 분야를 비롯하여 학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대학원의 사정을 보면 학부보다 더욱 특화된 분야를 연구하기 때문에 지도교수의 영향은 그만큼 더 직접적이다. 지도교수가 대학원생에게 보여주는 관심과 기회 부여는 앞으로 사회로 진출할 때 그 대학원생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학위수여 여부의 결정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교수는 분명 갑의 위치인 것은 확실하다. 많은 교수들은 대학원생들을 위한 자신의 지도 노력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교수들의 '갑질'도 꾸준히 기사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은 교수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분명히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의 관심 연구 분야에 대하여 또는 관련된 학업, 업무외의 교수님의 지시에 대하여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대화법을 간구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표현하기 어렵다면 외부의 도움을 구해 볼 수도 있다.

요즘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일에도 신경 쓸 것들이 많아졌다.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사소한 의견 차이나 업무 지시 하나하나가 상대방의 명예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평소에 교수도 대학원생도 자신들이 바람직한 규범에 어긋나는 행태를 습관화하고 있지 않은지, 늘 성찰하는 태도를 가질 때 바로잡을 수 있다.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는 물론이며,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현재 연구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지 늘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 연구재단 등이 배포하는 연구윤리 관련 자료들을 숙지하고, 연구윤리정보센터 등 관련 기관에 자주 접속하여 최신 동향을 익히는 것도 그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잘못된 관행은 분명히 없어야 한다. 힘들게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의 용기를 생각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칫 자애와 존경이 기본이 되어야 할 사제지간이 무미건조한 계약관계처럼 되어버릴까 우려스럽다. 사제지간의 기본은 스승은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며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어야 할 것이다.

교수는 학생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주고 제자는 연구업무와 교육업무 사이에서 바쁜 교수의 입장을 배려함으로써 자애와 존경심이 기본이 되는 사제지간의 정을 교감할 수 있는 관계가 많아지길 바란다. 졸업 후 사제지간은 같은 길을 걷는 선·후배, 또는 동료 연구자 관계로 발전해야 할 사이이다. 상호 인권 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대한 존중 등의 자세를 통해 원만한 연구실 생활과 더불어 졸업 후 시간이 지나도 가족을 대하듯 서로가 존중과 감사의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풍토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참고 사이트

- 위키백과 갑질 검색
<https://ko.wikipedia.org/wiki/%EA%B0%91%EC%A7%88>
- 교수 갑질 견디다 못해 대학원 떠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082124025&code=940100 2019, 1,8 검색
- 대학원 연구인력 권익강화 관련설문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112157052450>
- 대학원생 119
<https://graduunion.or.kr/2019/1213>
- 시민단체 대학원생 교수갑질 사례발표 “내아이 그림일기 대신 써라”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105234_24698.html
- “대학원생 자녀입시 도와라”교육부 ‘갑질’교수 특별조사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169441_24698.html
- 아침엔 교수 아들 등원, 밤엔 대리운전...“오늘도 노비가 됩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32044322988>
- 상아탑 횡령의온상“연구비 공동관리”.. 돈은 교수 주머니로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12331074957>
- Communicating Expectations to Your Lab Group
<https://ori.hhs.gov/blog/communicating-expectations-your-lab-group> 2019년 1월 25일
- 조교이름 빌려 연구비 10억 가로챈 교수 집행유예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9061774460437>
- 청년 복종을 배우다'교수갑질', '체육계 미투'만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1611557415558>
- 직원 밟고 때리고 ...제주대 병원 교수갑질 동영상 '파장'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7/2018112790156.html
- 지도교수와 학생(Good Mentorship)
http://www.cre.or.kr/board/?board=laboratory_articles
- 갑질 끝나지 않은 신분제 사회의 유습 이승환
<https://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97953&rid=253>